

해남군, 읍·면 사업 6개 공모로 선정

주민들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 심사 등 거쳐 1억 5600만원 확정 추경 예산 확정 다음달부터 추진

“우리면 사업은 우리가 만들어 추진한다.” 해남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공모하는 등 생활밀착형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은 14개 읍·면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자체 공모사업이다. 주민과 합

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자체 심사를 거쳐 6개 읍·면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화산면 ‘연화호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북평면 ‘여기! 우리! 신바람 북평 (지역 공영 활성화 사업)’ ▲마산면 ‘굿모닝 마산, 글로벌 아침제 (아침제 명소 조성 사업)’ ▲황산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실천, 해남형

ESG 완성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산이면 ‘동네방네 행복 나르기 사업 (무료 빨래방 운영)’ ▲화원면 ‘화원면민이 함께하는 ESG 재활용 세상 (분리배출 시설 설치)’이다.

군은 3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행정과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며 “2023년도 공모사업도 9월 중 공고 예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내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해양치유공원 완공

23일부터 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시설인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완공됐다.

이 시설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양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16억원을 투입해 327㎡ 규모로 시청각동, 후각동 등 4동으로 구성된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는 인체의 오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치유 체험을 할 수 있다.

시청각동에서는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일상생활에 지친 눈과 귀를 편안하게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후각동에서는 완도산 해조류가 첨가된 향수, 비누 등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향기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촉각동에서 해양 생물을 활용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미각동에서 해조류 샐러드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청산면 신흥리에 위치한 해양치유공원은 22억원을 투입, 6517㎡의 규모로 스마트 치유관 등 건

물 2동과 파빌리온 5동으로 돼 있다.

특히 신흥리 해변 해송 숲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스마트 치유관 내에 있는 푸드 치유관에서는 완도의 해초를 활용한 건강 샐러드를 시식하고, 해수 미스트 치유관에서는 해수 흡입으로 호흡기 질환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군은 전했다.

아외에 설치된 5개의 파빌리온에서는 족욕 치유, 소리 치유, 해조류 팩 치유, 허브 향기 치유, 허브 맥반석 치유 등 다양한 치유 체험이 가능하다.

시범 운영 프로그램은 예약제이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내년 준공되는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등 해양치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들녘 배추 정식 한창

4996ha... 10월말부터 수확

해남군의 들녘마다 해남배추 정식이 한창이다. 해남군은 가을배추는 9월 초까지, 겨울배추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배추 수확은 10월 말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진다.

해남군은 전국 배추 생산량의 20%를 생산하는 배추 주산지이다.

2022년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결과, 올해 총 4996ha 면적에서 가을·겨울 배추를 재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속이 짙 차고,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 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 30일 해남군 산이면 반송리 강병일씨의 밭에서 농민들이 배추모종을 정식하고 있다.

목포시, 유달시립테니스장·정구장 전천후 시설로 개보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

40억 들여 지붕 구조물 등 설치

목포시가 옛 유달경기장 부지에 있는 유달시립 테니스장과 정구장(사진)을 전면 개보수해 전천후 체육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유달시립테니스장과 정구장은 1987년에 준공된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시설로 침하 등의 문제와 야외체육시설의 특성상 날씨에 따른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반영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착공해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전천후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 5400㎡의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고, 테니스장·정구장 및 사무동을 전면 개보수해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테니스와 정구 동호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동호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3D기반 재난·재해 디지털 모델 구축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7억원 확보

영광군이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 공모사업에 선정돼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서면·발표)해 7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영광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분석, 예측, 최적화 등을 적용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 체계구축으로 도심지와 저수지의 과거 홍수재해 이력, 수문기상 관측자료, IoT 홍수위험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해경 추석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이 추석 연휴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

목포해경은 8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항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조업 여선을 비롯 해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일부터 7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추석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